

## The Key VI.

### 결정해야 마음이 생겨납니다.

#### 1.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 성도의 자세 - 농부

농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이다. 추수는 결과이다. 그래서 추수는 기쁨이다. 자신이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이 기쁨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마지막에 대한 보장이다.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과정'이 보장된다. 과정이 힘들어도 마지막의 상급을 바라 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의 마음도 그와 같다. '결과'를 믿는 마음은 모든 '과정'을 의미있게 한다. 내가 오늘 처한 상황의 시간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농부는 어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내'란 앞날이 기약이 없는 막연한 인내와 다르다. 내가 현재 체감하는 시간과 공간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 갑자기 내 마음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 진다. 확신이 생겨난다. 어려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솟아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없이 끝난다면 가장 허무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승리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다. 고난과 고통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농부의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시편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 2.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열쇠 - 기쁨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주고, 수고하여 추수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추수 밭 앞에 있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누렇게 익은 황금들판을 생각해 보라. 보기만해도 기쁠 것이다. 농부의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최고조가 될 것이다.

민수기 13,14장의 본문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이다.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실감이 나지 않지만 기뻐할 것이다.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 앞에 '가시권'으로 나타나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보이지 않았던 약속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상상만으로 풍년을 기대하겠지만, 그 풍년의 추수가 눈 앞에 가시권으로 나타날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떨겠는가? 기쁨이다.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 3.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별해 40일동안을 정탐하게 한다. 그런데 이들의 정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1) 사실에 대한 정탐

[민수기 13: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갓었습니다. 그 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 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이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좋은 최상의 언약임을 믿어야 한다. 그 언약의 실재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안에 구체적으로 ‘실제화’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막연함’ 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화 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실제화’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발을 기경하라.

## (2)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두 부류의 정탐꾼

부정적인 정탐꾼과 긍정적인 정탐꾼의 공통점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보여지는 가나안 거민들의 정탐은 동일하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민수기 14:9절에 ‘~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했다. 그들의 정탐 또한 거품이 있는, 남을 속이는 허황된 정탐이 아니었다.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이 보고했던 ‘말’, ‘워딩’ 에 있었다. 부정적인 정탐꾼이 보고한 워딩을 보라.

## (3) 부정적 정탐보고

ㄱ) 패배적 워딩 (민13:31)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보다 강하니라.

ㄴ) 부정적 워딩 (민13:32)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ㄷ) 자학적 워딩 (민13:33)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앞에 선 이들의 워딩을 보라. 추수하는 자가 가져야 할 ‘기쁨, 소망,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적으로 보면 ‘고아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아의 영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한 번도 누구를 의지하거나 믿어보지 못했다. 이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자기능력이 없으면 빼앗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다. 그래서 두렵다. 불안하다. 가져도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힘이 있어도 더 있어야 할 것은 끝없는 욕망 안에는 있다. 이들의 워딩은 항상 부정적이다. 패배적이다. 자학적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탐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다.

## (4) 말은 ‘영’이다.

[민수기 14:1-4]

1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고아의 영으로 가득한 정탐꾼의 워딩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었다. 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고아의 마음으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말’이다. 그래서 말은 ‘영적’이다. 영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에 관한 것이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다. 인간의 말은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 에덴동산이 인간의 마음을 ‘말’로 미혹하여 빼앗았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는 구체적인 열쇠는 성도들의 마음이 표현되는 ‘워딩’에 있다. 고아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다.

#### (5) 믿음의 보고 - 워딩

평강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떤 스텝이 부정적 보고를 해올 때,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린다. 부정적 사실을 보고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정적 사실을 보고 할 때 보고하는 사람이 ‘긍정과 소망과 믿음’으로 필터링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좋은 이야기와 쉬운 이야기만 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언어를 듣고 싶어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음성(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향해 나오는 존재적 축복의 음성이 바로 ‘믿음의 언어’이다.

##### ㄱ) 소망의 워딩(14:7) :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검으나 아름다운 땅의 마음이다.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작되어 있어야 한다. 아내와 자녀와 이웃을 보고, 또한 모든 환경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려고 하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보았다면, 그 마음을 극대화 하라. 이야기 해주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의 언어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단순히 동물처럼 의사소통만 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다. ‘시’,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음악’, ‘좋은 풍경’을 보라. 그래야 소망의 워딩을 할 수 있다.

##### ㄴ) 믿음의 워딩 (14:8) :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워딩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가운데 거듭거듭 확인하는 마음이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은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새겨야 한다. 새기는 일은 반복이다.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리더는 단순히 비전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비전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실히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사람이다. 새겨져야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자기가 말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리더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확신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기가 믿고 말해야 ‘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ㄷ) 용기의 워딩 (민14:9) :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용기의 워딩은 마음안에 실제적인 힘을 가져온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한다.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한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용기와 소망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힘을 얻게하는 것이다.

#### 4. 결정하면 마음이 생겨난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마음이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아버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다. 내 능력과 한계로 이해되지 않아도 결정하면 마음이 생겨난다.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 감사하겠다고 결정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난다. 힘을 내하겠다고 결정하면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 용서하겠다고 결정하면 신기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 나 누고, 베풀고, 심어야겠다고 결정하면 부유한 마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마음이 생기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이다. 마음이 없어도 ‘결정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다.